

#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the Early Motherhood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노영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Noh, Young-Jo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초기 모성경험의 내용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maternal experiences. This study applies ethnographic case study,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10 key interviewees. Findings were as follows: (1) Experiences of the body were about creating a new being through the pain of giving a birth and differed according to woman's self-evaluation of identity. (2) Child-rearing experiences marked a shift of position from a child to a parent. Interviewees experienced the hardship of life as a mother, its meanings differed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of interviewees. Child-rearing experiences meant a process of personal maturity. (3) Mother-child relationship shaped by child-rearing experiences, is a process of building meanings. It led to empathy and reinterpretation of her mother's life.

◆ key word: 모성경험, 질적연구, 성인 여성의 정체성

#### I. 서론

“모성경험은 임신, 출산 등으로 촉발되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지만,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

와 그 경험을 기술해내는 언어는 문화적이고 선택적이다”(김은실, 1996: 130). 즉, 모성은 여성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다. 모성이 여성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경험이 여

성 개인의 의도, 동기, 욕구 등으로 채색되는 삶의 한 영역임을 뜻하며, 모성이 하나의 제도라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개별 여성의 의도, 동기, 욕구와는 별도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관념, 사회 조직의 형식, 행동 규범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혈연과 모성이 증시되는 우리 문화의 특징은 부모됨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들지만,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는 모성경험과 그것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영구직을 갖고자 하며, 더 늦게 결혼하고, 때로는 출산을 연기하기도 하며,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는 여성들의 성인기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 개인의 결정과 신념에 영향을 주며, 자아의 발달과,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Smelser, 1980: 2-4).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을 조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모성경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모성과 여성성에 관한 상이한 시각을 담고 있는 여성 담론들이 등장함에 따라 모성은 곧 여성성을 의미한다는 통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성인임을 공인받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모성은 여성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줌마'라는 기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시족' 이미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함께 직업 경력을 가진 기혼 여성에 대한 긍정적 담론 역시 부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신'현모양처 담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 담론들은 모성경험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의 지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성경험을 여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모성이 성인 여성에 의해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모성연구는 자녀에서 어머니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면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국외의 경험적 모성연구에서는 기술적 연구와 함께 분석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Boulton, 1983; McMahon, 1995; Wearing, 1984),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김은실, 1996; 김지혜, 1995; 노영주, 1996; 변혜정, 1992; 신경아, 1997; 윤택림, 1996)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관점'을 취하여 여성을 어머니로서만 규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통념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성이 핵심적인 쟁점임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관점에서 모성경험에 접근한다는 것은 여성들을 가족과의 관련 속에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개인적 관점, 동기, 욕구 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제도로서의 모성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모성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즉 모성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모성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여성의 관점에서 임신에서 초기양육에 이르는 초기 모성경험의 내용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모성경험은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을 토대로 하되, 출산 테크놀로지의 발달, 사회와 가족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여성의 다중 정체성, 가족내 역할관계상의 역동성, 아동에 대한 정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과 맞물려 있는 다차원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모성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그들의 사회적 맥락과 전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모성경험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은 여성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동일한 행위나 경험이 당

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질적 연구<sup>1)</sup>의 일종인 문화기술적 접근을 취하였는데, 문화기술적 연구는 과학적 일반화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그것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를, 그들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관찰과 이해를 추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선정은 엄격한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인 면접이 가능한 조건 아래 연구

대상이 이를 쾌히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명의 제보자와 2명의 보조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첫 자녀가 취학전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 기혼여성 중에서 취업경험과 계층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을 취학전으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요구가 큰 시기이므로, 모성경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역동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모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연구절차

면접은 1997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계속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표 1> 제보자의 특성

제보자	연령	성장지	학력	결혼연령	자녀연령	취업경험	남편 직업
이윤희	34	서울	대학원졸	27	남(6)남(4)	개업의	대학교수
최현숙	33	전주	대학원졸	29	남(3)	대학교수	회사원
심연주	32	제주	대졸	27	남(5)여(1)	초등교사	고교교사
송정순	36	예천	전문대졸	32	여(3)여(1)	사무원	중장비대여업
오현정	33	서울	대졸	29	여(4)남(2)	(사무직)	회사원
박지현	35	서울	대졸	29	여(6)여(4)	(사무직)	고급공무원
문서영	28	부산	대졸	26	남(2)	(없음)	의사
박영임	30	익산	여상졸	25	남(5)남(4)	(판매직)	영업사원
윤영미	31	속초	고졸	23	여(8)남(7)	(생산직)	택시기사
김숙자	37	목포	중졸	28	남(8)여(6)	(서비스직)	페인트공
정희영	27	서울	여상졸	21	여(6)	(사무직)	가구업체경영
김소영	36	광주	대학원졸	33	여(3)	대학교수	사법연수원생

\* 제보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 )는 현재 전업주부인 제보자들의 취업경험이다.

1) 질적 연구에는 비참여-관찰연구, 참여관찰연구, 면접 연구, 문서 연구가 포함되며, 비참여-관찰연구에는 관찰자 연구, 동물인성학적 연구, 감정업 등이, 참여관찰연구에는 현지연구, 민속학, 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 현상학 등이, 면접 연구에는 탐색적 저널리즘, 구술사, 전기 등이, 문서 연구에는 역사학, 문학비평, 철학, 내용분석 등이 포함된다(Lecompte eds., 1992: 23).

하되 제보자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면접은 참여관찰을 겸하기 위해서 되도록 제보자의 집에서 하려고 하였으며,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였다. 면접은 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1회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평균 5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에는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공식적인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기를 끈 상태에서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면접은 스프래들리(Spradley, 이희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사이클에 따라 진행하였다. 대강의 연구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연구사이클을 시작한 후, 1차 면접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기록하고, 확보된 자료는 즉시 분석하여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의 면접과제를 선정하며, 이러한 사이클을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하였다. 면접은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반복되고 더 이상의 대안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따라서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을 병행하였다.

모성경험은 대체로 제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주제였고, 연구자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친밀관계가 형성되었다. 제보자의 집에서 면접을 한 것은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제보자의 집은 모성경험이 일어나는 물리적 환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 제보자와 자녀의 일상생활, 제보자의 양육행동, 제보자의 가사노동 표준 등 제보자의 모성경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하였다. 제보자가 거주하는 생태학적 지역은 특정한 형태의 생활방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모성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면접이 일어난 상황과 실제적인 면접을 전후하여 제보자와 주고받은 이야기들, 제보자의 집에서 받은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묘

사하는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Ⅲ. 초기 모성경험의 내용

#### 1. 몸의 경험

모성경험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이며,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의식하는 계기가 된다. 임신, 출산, 수유 등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성경험의 본질로 정의되어 왔으나, 제보자들이 자신의 몸을 경험하는 방식은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 즉 정체성<sup>2)</sup>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보자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점은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몸의 경험은 단순히 생식능력의 실현인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사회 내에서 그 양식과 의미가 결정되는 사회문화적 사건임"(김은실, 1996: 120)을 보여주었다.

#### 1) 또 다른 '나'의 탄생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분만고통과 출산을 통해서 강해지는 느낌, 생명을 창조했다는 자부심, 수유가 주는 충족감 등 출산과 수유의 경험은 이전과는 다른 '나'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제보자들은 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과 능력을 자각하게 되며, 자신을 경험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제보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출산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분만고통이었는데, 분만고통은 "애를 낳고 보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더라"든가 "어떠한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인내를 총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뜻한다. 사

2) 정체성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을 조망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성인 여성의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여성성의 이상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하는 과정이다(McMahon, 1995). 성인 여성의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무엇을 참된 자기의 모습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람들은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한다’든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시련이 인간으로서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출산이라는 몸의 경험 역시 그러한 경험이며, “어려운 것도 잘 참고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산출해 내는 강렬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많은 제보자들이 “생명을 창조하는” 출산 경험을 통해서 자부심과 유능감을 느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언급되기도 했다.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오현정씨는 출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창조물을 만들어 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몸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는 강렬한 경험은, 전업주부인 오현정씨에게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나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정체성의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때, 출산으로 대표되는 몸의 경험은 ‘나’와 고통이 하나가 되는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고, 무엇이든 견뎌 낼 수 있으며, 적어도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한 또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였다.

## 2) 몸의 경험과 정체성

임신, 출산, 수유 등 몸의 경험은, 학창시절까지 자신이 여성임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던 제보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몸의 경험에 대한 태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 정체성을 의식하는 제보자들에게서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두드러졌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보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몸의 경험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임신시기는 제보자의 취업유무 혹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다. 전업주부들은 대체로 결혼 후 2,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하였으며 그 이유는 주로 남

편이 나이거 많거나 장남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의무적 재생산 과정이며, 전업주부인 경우에 그 강제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임에 실패한 심연주씨를 제외하고, 취업주부들은 직업상 여건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적합한 때를 선택하여 임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임신한 시기는 대체로 결혼 후 1년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출산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결혼 시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개인적 선택의 여지가 적으며, 그만큼 출산에 대한 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역시 제보자의 정체성 지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들은 대체로 ‘(몸의 변화가)생소하고 낯선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데 반해서, 중산층 전문직 취업주부인 최현숙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는 갖고 싶지만, 아이를 열 달 동안 임신하고 낳는 여성만의 수고로움은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은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처음했다고 한다. 중산층 사무직 취업주부인 송정순씨 역시 ‘애 낳는 건 여자만 골병드는 일이니까, 이런 경험을 안하고 애가 생길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여자인 것이 싫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 취업주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의 부담을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임신, 출산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을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하나의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의 직업 정체성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여성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생활의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취업주부인 심연주씨는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으로 인한 경험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몸의 경험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여성으로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그것이 정상이

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위의 제보자들은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활 학적인 조건을 하나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중산층 전문직 취업주부인 김소영씨는 자신의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김소영씨는 자신의 모성경험을 “여성성의 절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김소영씨가 정의하는 여성성이란 ‘생산성, 보살핌, 경험과 관계의 풍요로움’ 등 여성으로서의 경험에서 파생되는 “여성고유의 장점”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소영씨가 여성의 생활학적 조건을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헌신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여성의 주체적 경험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취업주부들의 이야기는 몸의 경험에 대한 태도가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서로 달라짐을 뜻한다.

또한 많은 제보자들이 출산 후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출산 후 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점은 제보자의 정체성, 몸의 자기통제에 대한 기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담론 등과 관련이 있었다. 출산 후 “생각한 대로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모습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몸을 보면은 괴로웠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입던 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가 하는 현실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라는 말처럼 몸에 대한 자기통제의 기대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반응은 중산층 취업주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몸의 자기통제를 자기투자와 유능함의 한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중산층 전업주부인 박지현씨의 이야기는, 몸의 자기관리에 대한 강조가 여성적인 매력을 갖춘 “예쁜 아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박지현씨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신의 외모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은 박지현씨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었다. 박지현씨는, 출산 후 양육 초기에 “나는 좋은 엄마도 아니고, 시댁에 아들을 낳아 준 것도 아니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예쁜 아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부러지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여자는 시댁에 아들을 낳아 줄 의무가 있으며, 내용을 만한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애라도 딱 부러지게 키워야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여성적인 매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잠재해 있다.

또한 중산층 제보자들은 “내 인생이 웬지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대변되는 산후우울증에 대해 언급했다. 현대의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일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만간 원상회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여성들은 출산하기 전에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출산은 이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어머니라는 단 하나의 역할로 축소시킨다. 중산층 제보자들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증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지위 변화와 맥이 닿아 있었다. 양육 부담과 책임감, 신체적 고통과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정체성과 관련된 위기감 등이 산후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한 제보자들에게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위기감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저소득층 제보자들에게서는 산후우울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출산연령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박영임씨는 “나이가 어려서 낳아서인지(25세) 수술을 했는데도 몸이 낱아갈 것처럼 가뿐했다”고 했으며, 이른 나이(23세)에 출산한 윤영미씨 역시 “너무 시원하고 가뿐하고 아픈데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들에게서는 모성 정체성 이외의 다른 정체성에 대한 기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은 출산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출산연령은 산후의 신체적 고통과 회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출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점이 산후우울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산후우울증이 출산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주요한 작

움을 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임을 의미한다.

정체성과 관련된 제보자들의 몸의 경험에 따르면, 임신, 출산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요소는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심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는 더욱 부각된다. 그리고 몸의 경험을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으로 인한 자연스럽게 당연한 과정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몸의 경험은 그 자체로 정체성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2. 양육 경험

제보자들 모두 양육<sup>3)</sup>을 고된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들이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은, 어머니가 자신만의 경험세계와 욕구가 있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파생되며, 제보자들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은 인간적 성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 1) 양육의 어려움이 갖는 상이한 의미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며 일종의 노동이라는 점에는 모든 제보자가 동의하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의 의미는 제보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중산층 전문직 취업주부인 이윤희씨와 최현숙씨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자신의 일과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 사이의 시간 경쟁이라는 성격을 나타냈다. 반면, 사무원인 송정순씨와 초등학교사인 심연주씨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육체적 고달픔이라는 성격을 나타냈다.

그러나 생산직에 근무하며 탁아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곧 생계의 어려움을 의미하였다. 윤영미씨는 돌이 안된 아이를 데리고 공장에 나가 기숙사에 아이를 눕혀 놓고 일을 하다가,

둘째를 임신하고, 이후에는 집에서 월급제로 공장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은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하고 내 새끼한테 잔정도 못 주고 그렇게까지 억척스럽게 살아야 되는 상황의 서글픔” 때문이었다고 했다.

한편, 전업주부인 제보자들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전담 및 양육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양육 경험은 제보자들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들의 주생활 조건은 양육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주거공간이 넓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가사노동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 생활양식은 집안과 집밖의 단절이 커서 초기 양육기의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아이들을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진다.

양육의 어려움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연유하였던 김숙자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업주부들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일상적인 양육의 전담과 양육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중산층 전업주부인 오현정씨는 “양말이 까맣게 될 정도로” 종종 걸음쳐야 하는 일상적인 양육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막노동이 따로 없구나” 싶고, 특히 남편이 거의 도와주지 않고 가사노동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서글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현정씨는 그러한 노동은 자신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전업주부인 박영임씨의 경우, 일상적인 양육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간의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가 더 우세했다.

한편, 어머니를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들고 어머

- 3) 양육은 어머니로서 하는 일과 자녀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자녀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는 어머니로서 하는 일이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놀아 주고, 훈육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필요한 많은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자녀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사노동이다. 자녀로 인해서 부가되는 정돈과 청소, 세탁, 요리, 소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노동은 더 직접적이고, 육체적이며, 개인적이고, 대면상황을 요구하며, 노동강도가 높다(Bernard, 1974: 122).

니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초기 양육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어려움도 컸다. 중산층 전업주부인 오현정씨의 경우, 고립된 상황에서의 단순 반복노동,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 노동이라는 양육 특성 때문에 성인 여성으로서의 일상적인 욕구가 좌절되고, 자기비하, 무능력감, 고립감으로 인한 외로움 등을 경험하였다. 중산층 전업주부인 문서영씨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났다. 문서영씨는 수면스타일의 변화와 24시간 아이에 결속되어 있는 일상 때문에 어머니로서가 아닌 '나'로서의 일상에 대한 욕구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성취감이 없어지니까, 멍해지기도 하고," 주기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고, 여기저기가 자주 아프다고 하였다. 저소득층 전업주부인 박영임씨의 경우, 양육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초기 양육의 어려움이 '육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박영임씨는 "몸이 힘든 것은 힘들어도 괜찮았지만, 외출도 못하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그런 것이 힘들었으며, "너무 내 생활은 하나도 없고" 집안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전업주부인 박영임씨는 초기 양육기와 부부관계, 생활만족도 간에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초기 양육기의 부부는 서로에게 받기만을 기대하고 짜증을 자주 내며, 애들에게 매여서 집에 갇히다시피 지내는 어머니는 그런 스트레스를 남편이나 아이에게 풀게 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그런 문제들이 특별한 계기가 없이도 서서히 해소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제보자들에 따라 시간압박, 이중노동의 고달픔, 양육과 가사노동의 전담으로 인한 육체적 고달픔, 성인으로서의 욕구가 부정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압박감,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양육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제보자들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됨을 보여준다.

## 2) 양육을 통한 인간적 성숙

양육은 고된 노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들의 인간적 성숙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육 경험은 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피부로 실감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자녀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제보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변화를 배워 나가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제보자들은 "자신이 엄마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다"고 하였다. 자신이 성숙해졌다는 인식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증진, 인내심과 책임감의 강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체득, 자기이해의 심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생활의 중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제보자들이 모성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제보자들의 상이한 정서적, 지적, 신체적 능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최현숙씨는 양육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엄마가 얼마나 애를 쓰고 소중하게 키워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공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증시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애 낳은 엄마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론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상황, 사례 중심적인 개별화된 사고를 하면서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여성으로서의 자매애와 같은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현숙씨는 "때가 되면 결혼하고, 열 달 지나면 애가 나오고, 그리고 애는 낳으면 크는 거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이 하나를 이만큼 키우기까지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자 전체에 대한 공감이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현정씨는 "옛날에는 서로 비슷해야 사귀기도 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 자체가 좋고, 또 요새는 아줌마들 사귀면서 아무 것도 안 물어봐요. 어디서 살



있든, 뭐를 했든,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거를. 오히려 좋아요. 사는 게 이런 거다 싶고”라고 하여, 애 낳고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공감대가 서로 다른 인생사를 경험한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노동이라는 양육의 특성, 끊임없이 성장하며 변화하는 자녀를 보살피는 일은 제보자들로 하여금 상황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며, 이것은 다시 차이와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증진시키기도 하였다. 정희영씨는 ‘나라면 어땠을까’하는 가정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이윤희씨는 ‘세상을 보는 눈에 사랑이 담기고, 남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다’고 하였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인내심이나 책임감의 강화, 인간의 존엄성 인식, 자기 이해의 심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심연주씨는 “어머니가 되면서 내가 지키고 견뎌내야 될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인내심도 생기고 강인해지고 책임감도 늘었다”고 하였으며, 김소영씨는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보면서 숲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구체성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 주었으며, 문서영씨는 어머니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생활의 중요성은, 저소득층 전업주부인 윤영미씨에게서 목소리(voice)의 경험,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났다. 윤영미씨는 ‘주로 듣는’ 입장(목소리 없음)에서 ‘말하는’ 입장(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되고 힘겨운 양육 경험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는 자녀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은 제보자들을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흔히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말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양육 경험은 힘들기는 하지만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의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였다.

### 3. 모-자녀 관계의 경험

제보자들에게 모성경험은 자신의 몸의 경험이며, 양육의 경험인 동시에 ‘관계’의 경험이었다. 모-자녀 관계는 매일매일의 일상적 상호작용 관계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쌍방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유되는 의미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sup>4)</sup> 초기 모성경험은 대면적이고 개인적인 양육 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이 시기에도 관계적 요소는 양육이라는 요소와는 구분되며, 모성경험의 관계적 요소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드러지며 중요해진다. 관계로서의 모성은 제보자들이 모성 정체성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된다.

#### 1) 모-자녀 관계의 특성

제보자들은 모-자녀 관계를 다른 관계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라는 존재가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으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출산한 생명이라는 점, 유아는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점, 양육이 어머니의 책임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제보자들이 이야기한 모-자녀 관계의 특성은 다음의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제보자들은 모-자녀 관계가 운명적이며 절

4) 모-자녀 관계를 유대나 애착의 형성으로 설명하는 동물행동학과의 애착 유대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와 유아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서로 반응하여 마침내 상호 애착하기 때문에, 모-자녀간의 애착은 본능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자녀 관계는 출산 후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한다.

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부가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인 것과 달리 아이와의 관계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관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이고 대체될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한다. 이러한 절대성은 성인 여성인 어머니 편에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 편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느끼는 기쁨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둘째, 제보자들은 모-자녀 관계가 인내하면서 배풀어야 하고 성인 여성으로서의 '나'의 욕구를 부정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점과, 모-자녀 관계 특히 취학전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머니의 요구보다는 자녀의 일방적 요구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가 '배우는 즐거움, 존재의 확인'이라는 점과 연결될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성인 여성인 어머니가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모종의 압박을 느낀다면, 자녀 편에서 정의되는 관계의 절대성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 셋째, 제보자들은 모-자녀 관계가 충분한 기쁨과 위안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제보자들은 아이가 다른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충분한 기쁨과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이가 매순간 '세상의 맨 처음'을 경험하면서 벌이는 헤프닝들이 성인으로서의 어머니가 익숙해 있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아이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제보자들은 모-자녀 관계가 자신의 사람됨을 반성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하였다. 중산층 전업주부인 박지현씨는 모-자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이 관계가 그 동안 자신에게 덧씌워져 있던 모든 사회적 모습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인간'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모-자녀 관계가 관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불가능한 관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어떤 관계이든 성인들간의 관계에는 일종의 규칙이 작용하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그러한 규칙이 작용하지 않는 관계이며, 그것을 통해서 여성

은 관계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섯째, 제보자들은 자신의 내면이 모-자녀 관계에 투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모-자녀 관계는 어머니인 성인 여성의 내면을 되비치는 거울 같은 것이기도 했다. 저소득층 전업주부인 윤영미씨는 "기분이 나쁘면 나는 화살이고 재네는 방패"라는 말로 이 점을 표현하였다. 제보자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 는 점에서 아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이와의 관계에 그대로 투사됨으로써, 모-자녀관계는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 쏟아 부어지는 용광로 같은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전업주부인 제보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졌으며,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래서는 안되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성인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모-자녀 관계는 흔히 공생적이며 상호적이어서 자녀의 만족은 곧 어머니의 만족이 된다고 가정되어 왔다. 그런데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자녀 관계는 서로를 침해하고 강요하며, 쌍방이 다양한 방식으로 몰입된 그러한 관계이다. 이러한 점은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전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즉,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을 전담하게 하고, 양육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들이 존재하는 상황은 부분적으로 모-자녀 관계의 이러한 특성들을 구성한다.

## 2) 어머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재해석

모-자녀 관계의 차원에서 구성되는 모성경험이 반드시 어머니와 그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로서의 모성경험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모-자녀 관계로 전이되는 것이었다. 모-자녀 관계의 경험은 제보자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점은 자신의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공감은 어머니에 대한 재인식과 어머니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이르게 하며, 어머니와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최현숙씨는 자신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이들의 공감은 ‘자신의 욕구로 채색된 어머니’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박영임씨의 공감은, 어머니의 삶을 누릴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만 살았던 지난 시절의 여성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초도로우(Chodorow, 1974)가 언급한 모성경험에서의 이중동일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초도로우에 따르면, 성인 여성은 자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어린적 아이로 경험하게 되며,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성인의 관점에서 모-자녀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제보자들은 자녀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는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Knowles, 1990: 6)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 3) 모-자녀 관계를 통한 의미 지평의 확대

모-자녀 관계 경험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학습함으로써 부모인 성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부모라는 정체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자녀를 통해서 의미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칠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제보자는 이러한 경험을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에 연결되고 삶에 뿌리를 내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했고, 어떤 제보자는 “자녀를 통해서 사회를 새롭게 본다”고도 했다.

중산층 취업 주부인 김소영씨는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이렇게 부언했다. “그전에는 애하고 엄마하

고 손잡고 가는 것을 그림보는 것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들을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하고, 주의깊게 듣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는 눈이 달라져요.” 김소영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관계와 의미를 우리 인생에 제공하는 그런 것이다. 어머니됨을 통해서 획득되는 문화적 관계와 의미는 성인으로서의 생활과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자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출산에 대한 강력한 규범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자녀 관계의 경험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으로 작용하며, 그런 맥락에서 모-자녀 관계는 개인으로서의 성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 IV. 결론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옹호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존중하는 것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제한하는가를 밝히는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일차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연구자의 모성경험은 상이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로 사는 것에 대한 다양한 원천의 언술들은 모성신화에 젖어 있었고 기존의 모성연구는 모성경험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데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도로서의 모성보다는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모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작업은, 제도로서의 모성이 개인의 경험에 어

떠난 방식으로 울타리를 치는지를 파악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분석과정에서의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로서의 모성과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모성, 제도적 분석과 개인 수준의 분석,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모성경험을 제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은 모성경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상이하며,<sup>5)</sup> 어머니 혹은 자녀와 관련된 문화적 의미·특성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평가절하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분석과 개인 수준의 분석, 문화적 이해와 이데올로기 비판은 동일한 원자료를 보는 특정한 관점을 나타낸다는 인식은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그 양자의 논의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모성 경험은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모성경험이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경험이기도 하다. 정체성 경험으로서의 모성경험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지만, 모성경험이 곧 정체성 갈등의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모성경험의 개인적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적임을 보여주었다. 제보자들의 모성 경험은 어머니로서의 경험이 양육 경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이며 관계의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은 여성이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이며, 사회문화적 의미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인 동시에 사람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교육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당사자의 사회적 맥락과 정체성 정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상이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 【참 고 문 헌】

- 김은실(1996)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19-147.
- 김지혜(1995) 모성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35-55.
- 변혜정(1992) 임신에서 초기양육까지의 어머니일 수행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의 적응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1997)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택림(1996)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 윤현숙(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조용환(1998)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회* 199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Bernard J.(1974). *The Future of Motherhood*. New York : Penguin Books Inc.
- Boulton M. G.(1983). *On being a Mother*. New York : Tavistock Publications.
- Chodorow N.(1974).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M.Z. Rosaldo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5) 한슨(Hanson, 1975, 윤현숙, 199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제도적 수준의 분석과 개인적 수준의 분석은 분석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슨은 제도적 혹은 문화적 분석이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서 추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한슨에 의하면, 제도적 분석과 개인 수준의 분석은 동일한 추상 수준에 있으며, 단지 인간 행위를 보는 특정한 관점을 나타낸다. 제도적 수준의 분석이 인간 행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규범, 관습 등의 구조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면, 개인 수준의 분석은 인간 행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이유, 의도, 동기, 욕구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 LeCompte M.D. eds.(1992).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California:Academic Press, Inc.
- McMahon M.(1995). *Engendering Motherhood: Identity and Self-Transformation in Women's L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melser N. J.(1980). Issues in the Work and Love in Adulthood. in N.J. Smelser & E.H. Erikson ed. *Themes of Work and Love In Adulthood*.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Spradley J.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이회봉 역 (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Wearing B.(1984). *The Ideology of Motherhood : A Study of Sydney Suburban Mothers*. Sydney : George Allen & Unwin.